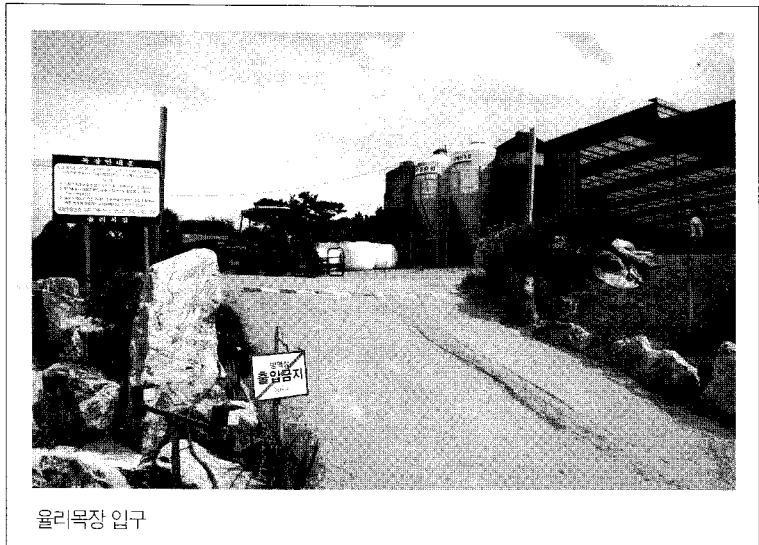


깨끗한목장 캠페인, 목장관리 큰 도움

-울리목장(2007 우수상 수상), 깨끗한 목장 선정 이후 HACCP 인증까지

취재 및 정리 : 김 재 민 (축산경제신문 기자)



울리목장 입구

해풍이 부는 목장이 있다.

간척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반어 반농가였던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위치한 울리목장.

화성시 일대가 점차 도시화되면서 화성시 특유의 자연 경관은 사라져 버리고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울리목장이 위치한 울리(화산리)일대는 아직도 옛 풍경을 조금이나마 간직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의 축산단지 중 한 곳인 화성일대는 1980년대 들어서 축산 붐이 일었다.

지금도 낙농목장과 양계부에서 사육두수는 도내 수위에 들 정도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시 관내 대부분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다 보니 소득 사업으로 축산을 택하게 됐고 낙농뿐만 아니라, 한우를 제외한 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등 전 축종에 걸쳐 농장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낙농부분의 경우 현재도 도내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자랑할 정도로 낙농은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마땅한 고정 수입이 없던 농가들에게 월 2회 유대 수입은 가장 큰 매력이었고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한 다른 품목에 비해 고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낙농은 농가들에게 선호하는 품목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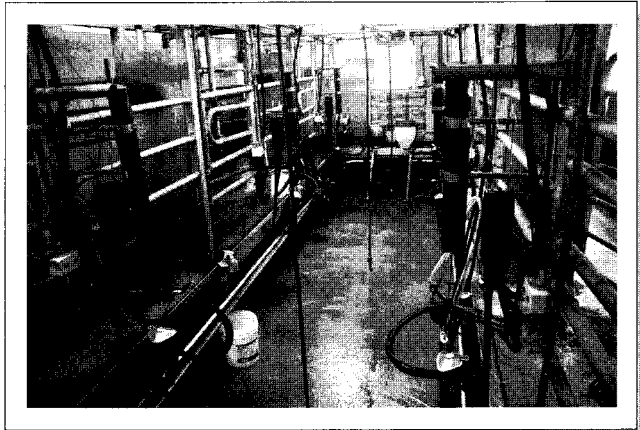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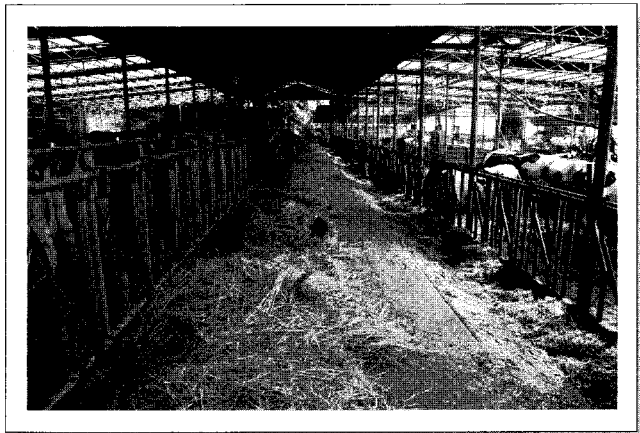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당시, 막 군에서 제대한 손희환씨는 부농의 꿈을 갖고 젃소를 구입했고 열심히 일을 했다.

바닷가가 인접한 마을인지라 부모님은 갯벌에서 조개류를 수확하고 또 논일과 밭일을 번갈아가며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새로운 일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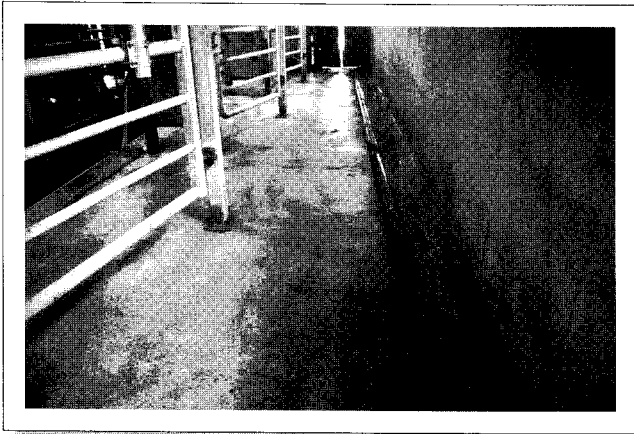
이후 1999년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기까지 목장은 차츰 커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때부터인가 목장에서의 수입이 농사일과 어가의 수입을 합한 것 앞지르기 시작해 이제는 7명의 대식구의 삶을 책임지기에 이르러, 현재는 하루 2톤여를 생산하는 큰 목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울리목장은 목장으로서의 조금 불리한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목장을 일구던 초기에는 마을 전체가 손씨 집성촌인 관계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해 주었지만, 목장이 커지면서 마을에서의 목장경영을 포기하고 마을서 500여 미터 떨어진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됐다.



① 자유로운 채식 공간 우측은 착유우가 좌측은 육성우가 기거한다.
② 2열 삼두의 템덤식 착유실. 늘 목장을 이렇게 바꾸면서 착유도 청소도 한결 편해졌다.



① 소가 지나가는 착유실 통로. 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② 잘 정리되어 있는 건조 더미들.

목장이 이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목장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안주인인 문동숙씨다. 바지런한 성격으로 정리정돈이 잘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여기저기 늘어 놓은 목장 정리에 늘 팔을 걷어 붙인다.

자녀 셋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대가족인지라 가끔 잡초 제거 등 목장환경 개선일에 아이들을 불러 일을 하지만 이도 한 두번 남편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에 불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목장관리의 노하우도 없던 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를 하고 가꿔야 하는지도 막막하던 차에 관내 인경목장이 목장관리를 잘해 낙농육우협회가 주관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의 우

수목장으로 2006년도 선정(우수상)됐다는 소식에 당장 찾아갔다.

울리목장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깨끗하게 관리되는 목장과 구석구석 가꿔진 화초 등에 매료된 문동숙씨는 당장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고 목장관리인에게 인경목장을 견학시키고 목장을 이런식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며 독려하면서 일은 시작됐다.

이후 보다 못한 손희환씨가 함께 가세하면서 목장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목장 이전 건축 후 축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허전했던 울리목장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목장으로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 특집 _ 깨끗한 목장 선정, 그 후 목장의 모습은? >>

환경개선의 핵심인 분뇨 처리 문제는 1999년 목장이 전 당시 분뇨처리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목장을 만들었고 손수 설계해 시공했다는 스크레파, 스키즈로더가 진입하기 쉽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분뇨처리장은 비가림 시설과 햇빛이 들도록 설계한 지붕 그리고 환기용 팬 설치로 모아진 축분이 잘 건조되고 부숙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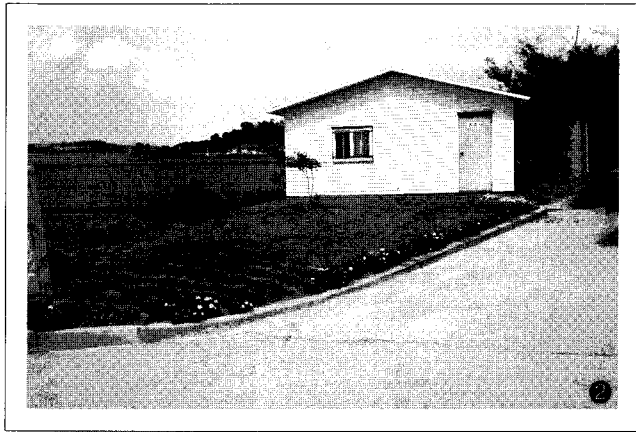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1만6000여평의 사료포에 환원되고 마을 주민들이 선호하면서 봄 영농기 마을 사람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옥수수를 주로 심었던 사료포는 청보리까지 함께 파종하면서 2모작 체계를 완성했는데 청보리의 경우 이제 사일리지로 만들었던 것을 급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마을 주변의 벼짚까지 대부분 수거하면서 조사료 자급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울리목장은 2007년도 우수목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최근에는 농장 단위 HACCP 인증까지 받으면서 목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목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매 뉴얼화 해 실천하다보니 목장관리가 한결 쉬워졌다며 낙농육우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캠페인이 농장단위 HACCP인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① 정리정돈은 단미사료도 예외일수 없다. 잘 적재되어 있는 창고의 내부.
② 목장 입구 관리인 기숙사. 잔디밭과 화초, 시원한 하늘이 인상적이다.